

# '해체위기' 동방신기 "5人으로" 3개월만에 日서 활동 재개

입력 2009. 11. 22. 13:59 · 수정 2009. 11. 22. 13:59



[뉴스엔 차연 기자]해체위기를 맞고 있는 동방신기가 5명의 모습으로 일본에서 3개월만에 활동을 재개한다.산케이신문, 스포츠호치, 데일리스포츠 등 복수의 일본 언론은 동방신기가 오는 11월 26일 니혼TV '베스트히트가요제2009'와 12월 2일 후지TV 'FNS가요제'에 출연한다고 22일 보도했다.

보도에 따르면 동방신기는 지난 8월 30일 '에이네이션' 오사카 공연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뒤 3개월만에 이들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일본에서 공식적인 활동을 재개하게 된다. 이들 언론은 동방신기가 연말 '레코드대상'과 NHK '홍백가합전' 등에도 출연 계획을 갖고 있다며 스케줄 조정을 위해 곧 일본을 방문한다고도 전했다.

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"한국에서는 '분열위기'라 보도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예정대로 5인의 동방신기의 모습을 선보인다"고 강조, 눈길을 끈다.

이는 21일 동방신기 세 멤버 시아준수, 믹키유천, 영웅재중 3인이 엠넷 아시아뮤직어워드(Mnet Asia Music Awards/MAMA)에 출연해 SM과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직후라 더욱 팬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.

세 멤버는 이날 시상식에서 베스트아시안스타상을 수상하고 유노윤호, 최강창민 두 멤버에게 "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"고 전해 팬들을 안타깝게 했다. 유노윤호와 최강창민 두 멤버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의 MAMA 보이콧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.

앞서 시아준수, 믹키유천, 영웅재중 등 동방신기 3인은 지난 7월, 13년 전속 계약에 대해 사실상 종신 계약이라는 뜻을 담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, SM은 서로 합의하에 갱신해 온 합당한 계약이라는 입장을 표명,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다.

이에 대해 재판부는 10월 27일 "전속계약의 일부 조항이 선량한 풍속에 반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거나 효력이 소멸됐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"며 세 멤버의 손을 들어줬다. 이후 SM 측이 3인에게 "11월 12일까지 돌아오라"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합의가 결렬, "결국 해체하는 것 아니냐"는 추측을 낳고 있다.

차연 sunshine@newsen.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@newsen.com손에 잡히는 뉴스, 눈에 보이는 뉴스(www.newsen.com)copyright© 뉴스엔. 무단전재 & 재배포 금지  
뉴스엔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